

박 영 숙

이것은 YWCA의 청소년운동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이다. 드러난 현상으로는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현격하게 감소되어가고 있는 학생층의 청소년 회원 동태와 운동의 자립저하를 들고 있다.

세계 Y의 정의에 따르면 12세 - 21세를 청소년으로 22세 - 35세 까지를 청년으로 연령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 회원이라 함은 중고등학생(현재로는 대다수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 그리고 그 연령의 일반 청소년과 미혼 직업여성 클럽회원을 총칭하고 있다.

YWCA 회원 또는 회원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각기 중고등 학교생활, 대학생 생활, 직장생활, 불취학 청소년 생활등의 아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 모두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기는 한정된 시간에 쉬운일이 아니다. 직업여성 클럽회원은 청년회원으로서는 별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일반회원으로 간주되어 있고 청년협의회 보고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모임이기에 회원의 심한 유동성을 비롯한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회원의 동태와 마찬가지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불취학 청소년과 그밖의 청소년의 회원활동은 아직은 개척단계라고 보아 이 발제에서는 문제성이 두드러지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운동에 관련된 문제제기에 한계를 두려고 한다. 사실상 엄밀한 의미의 청년집단이라 함은 학생집단을 지적할 수 밖에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YWCA의 청소년운동을 60년대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우선 그 조직양상에서 크게 위축된 현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대학 Y는 종합대학인 경우 각 단과대학의 Y가 모여서 이루어지며 Y-팀도 여러클럽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 Y-팀으로 연합회에 가입하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그 조직이 왜소화되어 하나의 클럽형식의 조직이 하나씩 각대학 및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을 뿐이라 약화현상은 조직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면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4년도에 실시한 대학 Y 회원의 기독교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 Y 운동을 학생기독교운동으로서 대학사회 안에서 대학기독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선교사명을 지닌 공동체로서의 운동이 아닌 하나의 사회
 봉사씨클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문제 제기된 바 있기도 하다.
 짧은 기간의 학창생활이란 약점이 단편적인 프로그램에 피동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자선적인 사회봉사와 취미 본위의 활동이 추가 되어있는
 오늘의 프로그램이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전국대회에 앞서 개최된 청소년
 전국대회의 Y-팀 자료중 사업보고에 나타난 활동내용으로 미루어 Y-팀들도
 유사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대회에서 지적하기를
 Y-팀의 세가지 목적중의 하나인 "세계 이웃과의 친선을 도모하라"는
 사항은 오늘의 Y-팀들로서는 실감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 대책을 요구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Y-팀도 그들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IWCA는 청소년운동
 전체를 한번 크게 평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오늘의 Y의 청소년운동의 약화현상을 그들 자신들은 그 원인을
 Y-팀에 있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생겨진 과중한 학교교제와
 행정부 및 학교당국의 비협조 내지는 활동제제로 인한 것이며 대학 Y의
 경우 학도호국단이 70년대 중반에 편성되면서 모든 학생활동이 그 산하에
 속하게 되자 대학 Y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나의 씨들로서 일체의
 프로그램을 단의 허가하에 가능하게 되므로 학생기독교운동의 본질을
 살린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총태에 해 오던 대학간의 합동행사 또는
 다른 기독교학생 단체와의 협력관계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도 일체
 제동이 걸렸다. 이와같은 제제는 비단 학생들과 그들의 활동에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이 운동에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기독교 교수 및 교사 또는 그밖의 지도력 포섭에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학사회에서는 기독교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등으로 약화현상을 촉진시켜 오늘의 회원감소와 프로그램 빈곤현상을 빚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오늘의 청소년운동의 약화현상은 비단 Y의 청소년운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상이며 양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오늘날과 같이 늙어버린 젊은이가 되기를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도 하여금 청년성을 발휘해서 그들 나름의 역사에의 공헌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요령주의, 적응주의, 이기주의 또는 기회주의자가 되기를 위해 재촉을 불같이 받고 있다. 그들은 마음놓고 꿈을 펴서 창의력을 발휘하며 정열을 소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지 못하고 감히 새와 묶여온 짐승처럼 부자유속에서 자기를 길들이고 있다. 이와같이 위축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두갈래로 갈라진다는 사실이 향락적이 되거나 아니면 극열해진다. 전진의 경우가 압도적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른말로 하면 역사의식(목적의 향배 사는)을 가지거나 안가지는 것으로 분리된다. 오늘의 상황에서는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면 좌절 당하고 참여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공식이 되어 버렸다. 그러기에 비역사화 또는 탈역사화(도취하여야 하는 삶, 종교적인 신비에 도취하는 것도 포함)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여겨지기 까지 한다. 이러한 경향의 와중에서 목적의식이 있는 청소년 운동의 가능성을 살펴 볼 때 오늘의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Y가 이번 대회에서 청소년운동 강화를 문제 삼는 것도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Y의 청소년운동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더 앞서 되어져야 할 일은 이에 대한 Y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다.

1)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는 어느정도인가 :

Y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Y의 본질로 보나 민족적인 사명에서 보나 청소년운동을 절대토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진다. 그러나 소극적이거나 방치할 우려는 지니고 있는 것을 염려한다. 운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행에는 Y의 재정, 시설, 지도력, 조직구조 및 운영면에서 적지 않은 희생과 변화가 따르게 됨으로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6회 전국대회때 이미 시작한 바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오늘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을 뿐 더러 무력한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도 잡힌 것도 아니고 보면 좌절당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강화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에 따르는 각오를 발판 삼지 않고서는 목적달성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운동방향은 어떻게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

Y는 회원의 운동체이므로 회원의 운동 전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의 Y의 능력(시설, 또는 지도력등)이나 시대적인 경향이 청소년운동 강화를 회원확대로 이룩하는데는 여러가지 제약을 가져다 준다고 앞서 말한 바 있거니와 그것으로 오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Y의 수용능력은 오늘의 회원으로도 힘에 겨운다. 청소년 회원들이 그들이 원하는 시설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입증해 주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강한 흡인력을 발휘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Y의 성격상 향락적인 욕구에도 목적의식 충족에도 시원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 Y가 보다 많은 청소년을 위한 운동전개와
오늘의 시대가 요청하는 운동 전개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의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풍토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Y만의 힘으로 Y안에서 해결이 되면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Y의 청소년 운동은 회원 하나하나의 바른 성장에도
관심을 가지는 한편 대사회운동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청소년운동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사회 운동의 전개방법의 하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
계속 청소년의 문제를 사회 여론화 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Y안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영역을 최대한도로 넓혀주는
노력을 펴서 그들의 다름이 되어주며 자기만을 들여다 보는 삶이
강요 되고 있는 그들에게 너를 위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란 이웃으로서 민중을
가리키며 그 민중은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다. 머지 않아
우리에게도 찾아 올 수 있는 생의 무의미성을 극복하는 일도 될 것이다.

오늘날 YWCA는 많은 책임을 안고 있다. 자칫하면 어떤 문제에도
백분의 일의 힘만 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는
백분의 일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 문제라고
지적한다. "큰 뜻을 이루소서"하는 기원속의 하나가 바로 이들의
문제 해소라고 믿는다.

구체적인 과제 발굴은 토의반에서 되어질 것으로 믿어 여기에서는
방향 제시에 그친다.